
 <div>건축도시공간연구소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div> <div>www.auri.re.kr</div>	보도자료		 <div>좋은 건축, 건강한 도시공간, 행복한 국민</div>	
	작성	담당부서		공간문화정책연구본부 국가한옥센터
		담당자		이민경 부연구위원
	배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일시		2014년 4월 17일		
보도 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

-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제1차 한옥포럼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국가한옥센터에서 주최하는 2014 제1차 한옥포럼이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을 주제로 4월 22일(화)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한옥포럼은 국가한옥센터에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한옥정책과 한옥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고 있다.
- 2014년 한옥포럼은 편리한 한옥짓기, 오래가는 한옥짓기, 실험적인 한옥짓기, 알뜰한 한옥짓기 의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한옥에 스며들고 있는 신기술 경향을 살펴본다.
- 제1차 한옥포럼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최·주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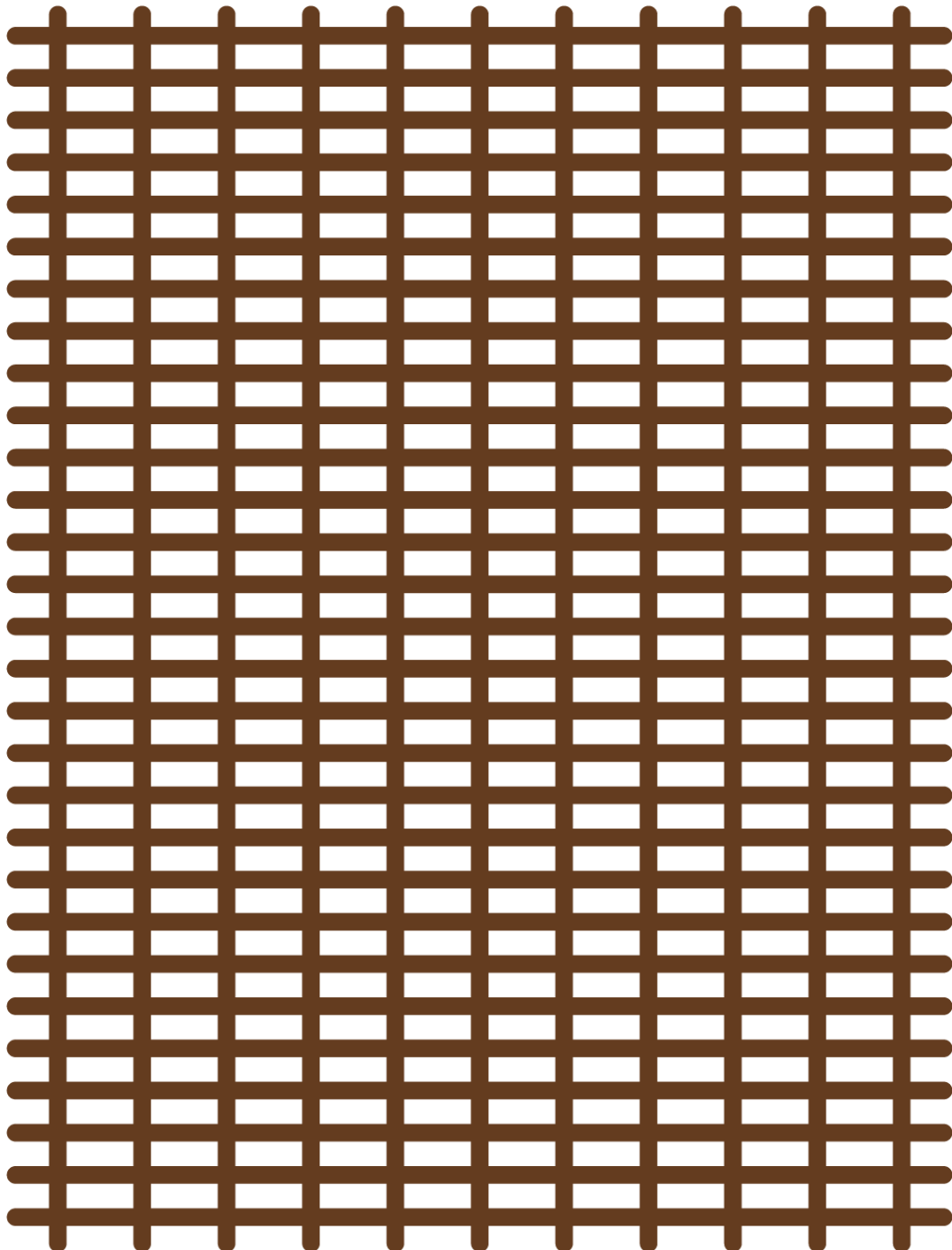
- 이번 행사는 ‘편리한 한옥짓기’라는 주제로 현대적 편의성을 반영한 한옥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지어질 한옥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첫 번째 발표로 별터건축사사무소 황진하 대표가 ‘한옥에 생활의 편의성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현대인의 다양한 생활에 맞추어 편리해지고 있는 한옥에 대해 소개한다.
- 두 번째로는 재단법인 행복전통마을 이현구 사무국장이 ‘고택, 어디까지 개조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고택을 유지,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관·산이 협력하여 고택을 숙박 및 체험 장소로 활용한 사례를 보여준다.
- 마지막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이 ‘생활패턴에 따른 한옥평면의 변화’를 주제로 거주자의 생활양식과 거주패턴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한옥의 평면구성에 대해 발표한다.
- 주제발표에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영섭 교수를 좌장으로, 금성건축사사무소 김용미 대표, dism21 이용완 대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이은복 과장,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 등이 현대적 편의성을 반영한 한옥의 모습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 국가한옥센터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대인의 삶에 적응하여 편리하게 진화하고 있는 한옥의 다양한 모습 소개를 통해 ‘한옥은 불편하다’와 같은 일부의 고정관념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제1차 한옥포럼 ‘편리한 한옥짓기’ 초청장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민경 부연구위원(☎ 031-478-98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



모시는 글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개최하는 ‘한옥포럼’은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한옥 정책과 한옥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의 장입니다.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은 2011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2012년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 가치와 전망”, 2013년 “우리가 원하는 한옥”에 이어, 2014년에는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을 주제로 편리하고, 오래가며, 실험적 이면서, 알뜰한 한옥 짓기의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옥 전통이 현대기술과 만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인의 삶을 반영한 새로운 공간디자인 기술, 내구성과 친환경성을 갖추기 위한 건축 기술 및 재료·설비 기술,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시공·유통 기술이 다각적으로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과거 한옥의 정체성을 뒤흔들면서 그 경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한옥을 바꿀어나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편리한 한옥 짓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다양한 생활에 맞추어 한옥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적 설비가 실내에 들어온 것은 물론이고, 달라진 삶의 형태에 맞추어 공간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옥 공간은 아파트 실내와 비슷해지기도 하고, 호텔처럼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처럼 현대적 편의성을 반영한 한옥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지어질 한옥의 미래상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4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2014년 4월 22일(화) 오후 2-6시



명동포스트타워(서울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한옥센터 031.478.9836



편리한 한옥짓기

13:30-14:00	등록	사회	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14:00-14:20	개회사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포럼소개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 이강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14:20-15:50	주제발표 1		한옥에 생활의 편의성을 더하다 황진하 별터건축사사무소 대표
	주제발표 2		고택, 어디까지 개조해야 하나? 이헌구 행복전통마을 사무국장
	주제발표 3		생활패턴에 따른 한옥평면의 변화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50-16:00	휴식 및 정리		
16:00-18:00	패널 및 전체토론	좌장	김영섭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토론자	김용미 (주)금성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이강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이용완 dism21 대표
			이은복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문문화과 과장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18:00	폐회		